



李 桓 範
한국기술사회 회장

기술사제도 바로 세워 과학기술강국으로 ...

존경하는 기술사 여러분.

희망찬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평안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술사활동영역 확대와 위상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진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기술사법의 전반적인 보완과 기술사제도를 훼손하는 관련 법령의 개선요구는 참여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지난해 말에는 공개된 바와 같이 정부의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에 담겨 정부주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련기구의 협의를 거쳐 기술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사들의 이익 챙기기 차원이 아닌, 다른 전문자격제도와 형평성 차원에서 자격제도의 기본원리로 정착된 내용을 기술사법에도 반영하여 이공계 자격제도의 법령상 흠대를 해소해 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제도개선 방향은 현재 붕괴지경에 이른 왜곡된 기술사제도에 익숙한 기술사 아닌 기술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불편감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이공계 기술자격인 기술사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공계 전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으로도 당당하며 능력경쟁을 통한 국가기술력향상의 바른 길임을 공감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술사 여러분.

새해 2월 25일에 개최하는 제4회 기술사의 날 행사와 10월 20일 경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제35회 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엄은 기술사 모두가 참여하여 축제를 자기 발전을 위한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길 촉구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정부의 지원금을 기술사들의 기술력제고에 투입하여 기술 분야별 세미나 등 전문교육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하니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900여 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홍보자료를 송부하고 활용을 적극 권장하겠으며, 활동 과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신고되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문제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을 각급 공공단체의 기술자문, 기술심의 평가위원으로 추천하는 수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법원의 민사재판에서 제기되는 고도의 기술적 판단 및 이에 따른 기술 감정과 상사중재원의 기술 분쟁 심의안건 증가는 장차 사법제도 개선, 로스쿨(law school)제도 도입과 맞물려 기술사들의 사법활동영역 참여 확대가 전망되며 환경변화에 따른 명실상부한 전문가로서 폭 넓은 지식 함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구 나라들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먼저 산업화를 이룬 이후 과학기술이 앞선 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최 단기간에 성취하고 정보화 사회로 내딛는 모범국가로 칭송되고 있으며, 숨 가쁜 발전 속에는 여러분의 기여가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더욱 매진하여 자신의 향상과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기술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5년 1월 1일

한국기술사회 회장 **李 桓 範**